

#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2. 12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 목 차

1. 해양 플라스틱 중립을 위한 유령어구 치우기 대회	3
2. 세계 인플레이션에 인도 새우 업계 휘청	4
3. 미 재무부, 중국 IUU 어업 및 노동 착취 혐의 기업 제재	5
4. EU와 영국, 2023년 중북 수역 어업 기회 합의	6
5. UN 총회, 지속가능 어업에 관한 결의안 채택	7
6.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 회의	9

## □ 어업이 발생시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통한 플라스틱 중립 시도

- 포르투갈 아조레스 다랑어 업계가 주최한 유령어구 치우기 대회가 개최되어 아조레스 제도 채낚기 어업이 2022년 '플라스틱 중립 상태(plastic-neutral status)'를 이뤄냄
- 국제채낚기재단(the International Pole and Line Foundation (IPNLF))에 따르면 본 대회를 통해 735킬로그램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서 건져냈으며, 그 중 620,65킬로그램이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였음
  - 유령어구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를 말로써, 유령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리고 서식지 파괴, 질병 확산, 외래종 침략 등의 문제를 야기함
-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매년 12.7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음
  -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수 십에서 수 백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함
  - 2019년 발표된 그린피스 보고서는 유령어구가 해양 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닷속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이 그물이나 부이라고 밝히고 있음
- 본 플라스틱 치우기 대회는 플라스틱 중립 프로젝트(Plastic Neutrality Project)를 통해 IPNLF와 아조레스수산업서버프로그램(Azores Fisheries Observer Program (POPA)), 해양연구기관(Institute of Marine Research (IMAR)) 등이 함께 개최하였음
- 플라스틱 중립 프로젝트는 아조레스 제도에서 세 번의 유령어구 치우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채낚기 선단이 해양 오염에 기여한 만큼의 플라스틱을 제거하여 플라스틱 중립을 이뤄내는 목표를 가짐
  - 2022년 대회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하여 유령어구 회수량도 더 많았으며, 가장 많이 회수된 어구로는 나일론 케이블(253.35kg), 부이(134.80kg), fishing reflectors(118kg), 나일론 멀티필라멘트 그물 (114.5kg) 등이 이라고 함

※ 출처: SeafoodSource<sup>1)</sup>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2022-ghost-gear-removal-competition-in-the-azores-resulted-in-a-plastic-neutral-status>

## □ 미국, EU 수요 감소와 중국 시장 경쟁 심화

-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화와 생산 감소와 함께 인도 새우 업계가 휘청이고 있음
- 인도의 작년 수산물 수출액은 77억 6천만 미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번 회계 연도('23년 3월 31일 종료)에는 88억 미달러를 목표액으로 정하였으나,
  - 미국과 EU의 낮은 수요와 중국 시장 장벽으로 인해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임
-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에콰도르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인도 새우 수출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거에는 인도가 중국 새우 수요의 70 퍼센트를 공급하였으나, 최근 에콰도르가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엄격한 수입규정을 충족하며 중국의 최대 새우 수입국으로 발돋움함
- 추가로, 재고물량이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값 급등 등이 인도 수산물 수출업에 타격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들이 모여 인도 새우 구입가 하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 새우 양식업자들이 업계를 떠나려 하고 있음
  - 인도의 최대 새우 생산지인 안드레프라데시주 지방 정부와 새우수출협회는 지역 양식업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을 해야만 했으며,
  - 수출협회 회원사들은 정부 지정가로 새우를 구입하기로 약속하였음
- 인도 양식 및 수출의 어려움으로 인도 새우 생산은 전년 850,000MT에서 올해 650,000~700,000MT 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출처: SeafoodSource<sup>2)</sup>

2)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2022-ghost-gear-removal-competition-in-the-azores-resulted-in-a-plastic-neutral-status>

-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OFAC)은 12월 9일 Pingtan Marine과 Dalian Ocean Fishing 기업이 불법 어업과 노동 착취에 꾸준히 관여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강하게 비난하였음
- 중국 외교부 대변인 Mao Ning은 미국의 제재에 대하여 이는 “이중 잣대”이며 인권이라는 구실로 중국의 국내 문제를 간섭하는 것이라고 규탄하였음
    - 해당 혐의에 대하여 중국은 책임 있는 어업 국가로 불법 어업을 엄중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 오히려 미국의 어선들이 국제 수산 기구에서 설정한 제한보다 초과하여 어획하는 상황이라고 어필하였음
  - 미 재무부의 제재로 두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발이 묶인 상황이며 Pingtan은 해당 혐의에 대하여 당사는 국제 기준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 어업을 한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발표하였음
  - 미국의 제재에 대하여 유럽의 어업 업계 대표들은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음
    - 유럽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EU에 제안한 상태임
    -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무역 조치를 채택하여 수산물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미국의 제재가 이런 움직임을 촉진 시킬 것을 기대
  - 유럽 의회 및 EU 원양어업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EU 기관들이 최근에 중국의 원양어선에 대하여 연구를 게재하였음
    - 해당 연구는 전채 미감시, 외국 국기 사용 등을 포함한 중국의 원양어선 활동의 투명성 결핍에 대해 다루고 있음
    -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과 인권 학대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음
  - Pew Charitable Trust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제재를 환영하며 이와 함께 WTO의 IUU 어업 및 강제 노동에 대한 수산보조금협정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다시금 강조함

※ 출처: [www.seafoodsource.com](http://www.seafoodsource.com) <sup>3)</sup>

3)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pingtan-marine-chinese-government-ngos-respond-to-us-sanctions>

- EU는 영국과 북동 대서양에서 중북 수역에 대한 어류 자원량의 어업 기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음
- 협정을 통하여 북동 대서양의 중북 수역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중북 수역에는 74개 이상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EU 선박들에게 350,000톤이 넘는 어업 기회를 제공할 것
  - 본 합의는 EU-UK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라 중북 수역의 공유 자원량에 대한 2023년 총할당어획제한(TACs)를 설정하고 날개다랑어 어업을 위한 상호간 접근에 대한 사항을 수립함
    - EU-UK 무역협력협정은 매년 연례 협의를 거쳐서 어획 제한을 결정함
    - TCA는 쿼터가 없는 자원량 또한 역사적 어획 수준에서 공동으로 접근하도록 규정함
    - 최근에는 EU와 영국이 북동 대서양 mackerel, blue whiting 및 atlanto-Scandian herring의 2023년도 어획 제한을 합의하였고 EU는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 3자 협상을 통하여 북해의 주요 6개의 어종에 대한 협정을 맺었음
  - 협정은 국제해양탐사회의(ICES)에서 제공한 어류 자원량의 상태에 대한 최선의 가용한 과학적 권고를 기반으로 함
  - EU의 일반적 어업 정책(CFP)와 TCA의 어업 관련 내용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및 관리 원칙을 고려하며 이는 최대 지속가능한 어획량(MSY) 및 예비적 접근을 포함함
  - 추가적으로, EU-UK 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분지의 취약한 자원량을 보호할 기술적 조치 검토를 포함한 중복된 어업 자원량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출처: ec.europa.eu <sup>4)</sup>

<sup>4)</sup>[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843](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843)

-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하여, UN 총회는 지속가능한 어업,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감소, 해양쓰레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국가들은 또한 정부간 기구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였음.
- UN 총회는 노르웨이에 의해 소개된 공해어업협정(경계왕래성 어족과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관리와 관련한 1982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1995년 협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음. 결의안에서 국가들은 어족자원의 보존, 관리, 이용에 대해 사전 예방주의 및 생태계적 접근을 적용할 것이 요청됨.
- UN 총회는 싱가포르에 의해 소개된 “해양과 해양법” 결의에 대해서는 행동을 연기하였음.
- 결의안들에 대해, 쿠바는 글로벌 및 지역 수준에서 해양에 관한 기존 도구들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언급하였음.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결의안이 해양생물다양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나아가, 결의안은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수중 소음,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러시아는 결의안의 분량과 범위,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제안서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결의안들은 더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 되고 있고 목표 대상자들인 관련 국가 당국에 유용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였음.
- EU는 옵서버 지위에서,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결의안에 100개 이상 국가들이 행한 자발적인 약속 사실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결의안이 수중 소음을 다루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 현상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과학적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 이슈가 여전히 논쟁 중인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음.
-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는 전세계 소도 개도국들과 저지대 공동체들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이 또한 강조되었음. 태평양 도서국 포럼을 대표하여, 피지는 바닷가 주민들은 바다를 영양, 생계,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최대 근원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피지는 정부간 협상기구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치하하였음.

- 같은 의견으로, 소도서국 연합을 대표하여, 안티구아앤바뷰다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음. 안티구아앤바뷰다는 “바다의 자연적 적응 역량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쇠퇴를 일으키고 있고, 수백 가지 어종의 상실을 초래하는 대규모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재해들이 소도서국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이 미루어져서는 안됨을 강조하였음.
-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을 바다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해양 관찰 시스템 2030 전략의 채택을 환영하였음.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생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방글라데시 남부 연안의 40%가 침수되어 주민 이탈, 식량 불안정, 경제 손실을 초래함을 언급하였음.
- “기후변화학자들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도서국들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을 몰디브는 경고하였음. 몰디브는 교차 접근을 토대로 한 초국경 위험과 국제책임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해양 관찰 시스템의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같은 맥락에서, 필리핀은 물이 영토의 6배를 둘러싸고 있는 자국의 운명은 글로벌 해양과 직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음. 기후변화는 해양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양 열과 산성화가 2021년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음에 주의해야 하고, 필리핀에서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의 2-3배에 달함을 언급하였음.
- 여러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충돌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필리핀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음. 마찬가지로, 호주는 남중국해에서의 심각한 충돌들에 대해 경고하며 해양에 관한 모든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
- 해양법재판소장 Albert Hoffmann은 총회에 해양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주요 3개 사건들(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간 “San Padre Pio”, M/T “Heroic Idun”)에 대해 브리핑하였음.
- 또한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Michael W. Lodge이 총회에 브리핑하였음.

출처: UN 보도자료 5)

5) <https://press.un.org/en/2022/ga12480.doc.htm> (2022년 12월 9일 기사)



- 약 200개의 국가들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추고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목표들에 합의하였음.
- 이 이정표가 될 결과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OP15로 불리는 UN 생물다양성 회의에서 2주간의 때로는 긴장된 논의 끝에 도출된 것임.
- 옵서버들은 Kunming-Montreal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① 강화된 미션, ② 측정가능한 목표 그리고 ③ “향상된 이행 매커니즘”으로 이전 2010년 COP10에서 합의된 Aichi 목표들과는 달리 성공하기를 희망하였음.
-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예정된 시기보다 2년 늦게 개최된 COP15는 몬트리올의 극심한 추위와 때로는 냉랭한 협상으로 특징지워졌음.
- 프레임워크의 계획을 높이길 원하는 개발된 국가들과 개발된 국가들이 충분한 자원을 기여하길 요구하는 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회의 내내 긴장감이 돌았음.
- 협상은 12월 19일 월요일에 타결되었고, 여기에는 세계 육지의 30%와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인 “30x30” 목표가 포함되었음.
- 또한 두 번째 “30x30” 목표가 최종 패키지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개발된 국가들이 개도국들을 위해서 2030년까지 300억불을 동원하기로 하는 내용임.
- 그러나 COP15 의장 Huang Runqiu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행시키자 긴장감은 다시 감돌았고, 옵서버들은 “컨센서스”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음.
- 하지만 긴장감은 폐회일에 해소되었고, 회의 최종보고서에 최종 절차에 관한 유보를 기록하기로 하였음.
- 회의에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동반하여, 협상 결과의 보다 기술적 측면들을 다루는 다수의 “결정 문서”들을 도출하였고, 여기에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자원 동원 그리고 미래 작업 부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문서들은 GBF 자체보다는 정치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프레임

워크를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사항들을 다루고 있음.

- GBF와 결정문서들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어느 요소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하지만, 국가들은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해 보고, 검토 및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는 계획을 통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합의하였음. 이는 파리 기후 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획과 유사한 것임.

출처: [www.carbonbrief.org](http://www.carbonbrief.org) <sup>6)</sup>

---

6) <https://www.carbonbrief.org/cop15-key-outcomes-agreed-at-the-un-biodiversity-conference-in-montreal> (2022년 12월 20일 기사)